

지향성으로 본 탈식민적 페미니즘의 서발턴 연구* — 박범신의 「나마스테」를 중심으로 —

이 미 화**

요약

후설에게 있어서 지향성의 중심과제는 대상을 그 자체에 있어서 파악하는 것이다. 비록 후설 이후 많은 현상학자들이 후설에 대한 이단의 역사를 쓰고 있지만, 이 '사태 그 자체로' 돌아가자는 후설의 정신만큼은 계속되고 있다. 그런데 탈식민적 페미니즘에서도 서발턴 여성이 정말로 말하고 싶었던 것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를 전위하기 위해서는 진술을 '그 자체로' 읽고 또 그 읽기 행위를 성찰하는 작업이 중요하다. 이렇게 후설의 지향성은 탈식민적 페미니즘의 서발턴 논의와 통한다. 주목할 것은 언제나 대상으로 향하는 이런 의식이 박범신의 「나마스테」에 나타난다는 점이다. 「나마스테」에서 핵심어로 등장하는 “나마스테”라는 인사말이 “세상과의 소통”을 의미한다는 점은 그래서 더욱 특별하게 다가온다. 하지만 아쉽게도 이 소통의 현장에서 여성은 배제되어 있었다. 「나마스테」가 “카르마”로 연결된 복잡한 세상과의 소통을 지향했으면서도 그 지향성의 지평적 성격에서 여성은 소외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에 본고는 박범신의 「나마스테」를 상식적인 세계관과 자연적 태도를 버리고 선험적 태도를 취하는 지향성으로 탈식민적 페미니즘의 서발턴 논의를 진행할 것이다.

주제어: 후설, 지향성, 탈식민적 페미니즘, 서발턴, 스피박, 박범신, 「나마

* 이 논문은 2016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6S1A5B5A07919326)

** 부산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시간강사

목
차

1. 들어가며
2. 주체적 존재와 자발적 반성
3. 자본주의와 모귀지향적 사랑
4. 배타적 문명과 공동체 지향의식
5. 나오며

1. 들어가며

후설(Edmund Husserl, 1859~1938)은 동일한 대상이 그 대상을 경험하는 사람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대상이 되는 문제에 대하여, 대상은 달라지지 않았지만 그 대상을 통해 우리가 읽어내는 의미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우리가 주어진 사태에 어떤 의미를 부여해서 보느냐에 따라 문제의 사태는 각각 다른 의미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의식은 언제나 ‘~에 대한 의식’(지향성)으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때 지향된 주체(노에시스)가 있고, 지향되는 대상(노에마)이 있으며, 이 둘은 상관관계를 가진다. 예를 들면, 데카르트의 명제인 “나는 생각한다.”는 후설에 따르면 “나는 (무엇을) 생각한다.”라고 말해야 한다는 것이다.¹⁾

1) 박승억, 『후설 & 하이데거』, 김영사, 2007, 69-74면. 박승억은 후설의 지향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사유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내 앞에 지금 평소에는 보기 힘든 네 잎 클로버가 있다. 내가 보는 네 잎 클로버 자체는 하나의 현상이다. 그런데 나는 네 잎 클로버를 보면서 나폴레옹이 우연히 네 잎 클로버를 보고 허리를 숙이는 바람에 목숨을 구했고, 그 때문에 행운의 상징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떠올렸다고 해보자. 이것 역시 하나의 의미 현상이다. 또 네 잎 클로버를 보면

이 의식의 지향적 구조에 대한 통찰은 우리가 세계를 경험하는 과정을 해명하는 결정적인 실마리를 제공한다. 그래서 역사는 “그 일이 어떻게 해서 일어났지?”라고 묻는 반면, 현상학자(후설)는 “내가 그 일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지?”라고 묻는다.²⁾ 이런 후설의 지향성 이론은 대상을 노에시스에 상관적인 노에마로 만듦으로써 근대적 이원론을 넘어선다.³⁾ 즉 후설의 지향성은 구미의 언어와 문화와 시각이 보편적이지 않고 오히려 인식론적 폭력을 행사한다고 보기에 이분법을 넘어서 경계선을 넘어서는 새로운 사유체계를 모색하려는⁴⁾ 탈식민적 페미니즘의 서발턴 논의와 통한다.

그렇다면 문학텍스트에서 억압적 지배사회 속에서 주변화되어온 타자들을 복원하는 것을 공통의 목표로 하여 서발턴이 형상화되었더라도 “누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재현했느냐”에 따라 서발턴은

서 그것이 생물학적으로는 돌연변이라는 사실을 떠올렸다고 해보자. 이것 역시 또 하나의 의미 현상이다. 이 모든 현상이 우리의 의식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이다. 결국 ‘내 눈앞에 있는 네 잎 클로버’라는 하나의 현상은 다양한 의미를 가진 사태들로 변화해갈 수 있다. 물론 각각의 사태들은 네 잎 클로버라는 동일한 뿌리에서 나왔지만 우리의 의식에서는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진 말하자면, 서로 다른 의미 통일체로서의 사태들이다. 그런데 이 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의 동일한 현상이 서로 다른 의미의 사태들로 우리의 의식에 떠오른다는 것은 무엇 때문이겠는가? 네 잎 클로버가 우리의 의식을 조종하는 것일까? 물론 그럴 리는 없다. 결국 남은 대안은 네 잎 클로버를 대상화하는 우리의 의식 속에 숨겨져 있다. 아주 단순하게 말하자면 우리가 주어진 사태에 어떤 의미를 부여해서 보느냐에 따라 문제의 사태는 각각 다른 의미의 대상이 된다. 울릉도 동남쪽에 위치한 외로운 섬 독도를 그저 아무런 이해관계를 생각하지 않고 무심한 눈으로 보면, 그저 갈매기들이나 노니는 섬에 불과하지만, 어떤 관점에서는 그저 망망대해에 떠 있는 조그만 섬이 아니라 민족의 자긍심을 상징하는 섬이 되기도 하는 것이다. 이 각각의 사태가 갖는 의미의 차이는 독도라는 섬이 우리의 의식에 어떻게 주어지느냐에 따라 달려 있다.

2) 피에르 테브나즈, 김동규 옮김, 『현상학이란 무엇인가- 후설에서 메를로퐁티까지』, (주)그린비출판사, 2011, 109면.

3) 이종훈, 『후설의 현상학과 현대문명 비판』, 한국학술정보(주), 2014, 158면.

4) 가야트리 차크라보르티 스피박, 문학이론연구회 옮김, 『경계선 넘기- 새로운 문학연구의 모색』, 인간사랑, 2008, 16면.

차이날 것이다. 왜냐하면 새로운 세계 질서 속에서 출현하고 있는 새로운 서발턴을 상기할 때, 그 저울의 맞은 편 끝에 있는 도시 하부프롤레타리아 여성의 경우 다중으로 지워졌을 것이 가능되기 때문이다.⁵⁾ 따라서 본고는 후설의 지향성 개념으로 탈식민적 페미니즘의 서발턴을 연구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박범신의 『나마스테』는 제3세계 이주노동자의 삶을 다룬다. 타자의 인권을 국민국가의 개념 안에서 사유하는 방식이 지닌 문제점을 밀도 높게 그린 것이다. 그 결과 『나마스테』는 전지구적 자본의 지배와 그 병폐를 잘 나타낸 작품⁶⁾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아쉽게도 『나마스테』에는 중대한 문제점이 발견된다. 그것은 『나마스테』의 화자가 여성임에도 전혀 여성적 시각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는 서사의 주된 인물 네 명(화자인 동시에 여성주인공인 신우, 남성주인공인 카밀, 반동인물인 사비나, 후반부의 화자인 신우의 딸) 중 세 명이 여성이라는 점에서도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여성이 서사의 중심을 이루는 작품임에도 진짜 여성은 사라지고 없는 것이다. 이 같은 특성은 『나마스테』가 타자의 인권을 수호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친 작품이라는 점에서 역설적으로 중요해진다. 왜냐하면 인권을 옹호하는 많은 이들이 간과하지 못한 것은, 자신들이 바로잡고 있는 잘못을 정의할 때 타자들에 대한 윤리적으로 위험한 재현이 수반된다는 점이 간과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나마스테』는 차별적인 것이 묵인된, 계층 정체성에 대한 혹은 젠더 정체성에 대한 문화적, 정치적, 사회적 생산들의 체계적인 전유화에 대해 끊임 없이 빈틈없는 경계를 시도하는 해체적 사유⁷⁾의 필요성이 포착된

5) 가야트리 차크라보르티 스피박 외 지음, 로절린드 C. 모리스 역음, 태혜숙 옮김, 『서발턴은 말할 수 있는가?- 서발턴 개념의 역사에 관한 성찰들』, (주)그린비출판사, 2013, 86-90면.

6) 박진, 『박범신 장편소설 〈나마스테〉에 나타난 이주노동자의 재현 이미지와 국민국가의 문제』, 『현대문학이론연구』 40, 현대문학이론학회, 223면.

다. 즉 지향성 개념을 통한 서발턴 논의가 필요한 것이다.

한편, 박범신의 『나마스테』는 그동안 다문화소설, 타자성, 소통, 국민국가와 주권의 문제 등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이라는 측면에서 왕성한 연구가 이루어졌다.⁸⁾ 그러나 이러한 논의들은 작품에 드

-
- 7) 한국영미문학페미니즘 학회, 『페미니즘, 어제와 오늘』, 민음사, 2000, 244-253면
- 8) 김혜원, 『박범신의 <나마스테>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6
- 문제원, 『이주의 서사와 로컬리티- <나마스테>와 <잘가라, 서커스>에 재현된 이주 공간』, 『한국문학논총』 54, 2010
- 박정애, 『2000년대 한국 소설에서 '다문화가족'의 성별적 재현 양상 연구』, 『여성문학연구』 22, 2009
- 박진, 앞의 논문.
- 백지은, 『지금 만나러 갑니다 최근 한국소설과 '낮선 삶의 출현』, 『세계의 문학』, 2007
- 송현호, 『다문화 사회의 유형과 서사 전략에 관한 연구』, 『현대소설연구』 44, 2010
- 오윤호, 『디아스포라의 플롯- 2000년대 소설에 형상화된 다문화 사회의 외국인 거주자』, 『시학과 언어학』 17, 2009
- 우한용, 『21세기 한국사회의 다양성과 소설적 전망』, 『현대소설연구』 40, 2009
- 유경수, 『문학과 현실의 소통의 가능성- 박범신의 <나마스테>를 중심으로』, 『비교한국학』 16, 2008
- 윤영옥, 『21세기 다문화소설에 나타난 국민 개념의 재구성과 탈식민성』,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56, 2012
- 이도흠, 『<나마스테>에 나타난 타자성의 두 양상』, 『기호학 연구』 34, 2012
- 이미립, 『2000년대 다문화소설에 나타난 이주노동자의 재현 양상』, 『우리문학연구』 35, 2012
- 이수형, 『새로운 말 배우기- 박범신 장편소설 <나마스테>』, 『문학동네』 43, 2005
- 이승연, 『소수자 이해를 위한 다문화시대의 소설교육 연구- <나마스테>, <마당을 나온 암탉>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 이호규, 『'타자'로서의 발견, '우리'로서의 자각과 확인』, 『현대문학의 연구』 36, 2008
- 조구호, 『이주노동자의 현실과 상생을 위한 모색- <나마스테>를 중심으로』, 『국제어문』 52, 2011
- 조성희, 『소설 <나마스테>에 드러나는 다문화주의 수용의 한계』, 『Journal of Korean Culture』 17, 2011

러나는 자연의식(표면적 의미)에 집중한 연구들이 반복되는 경향이
라 할 수 있다. 뒤집어 말하면, 박범신의 『나마스테』가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작품에 담길 수밖에 없었던 선택의식(이면적 의미)을 간
과해온 연구 경향을 가진 것이다. 이에 본고는 『나마스테』의 선택의
식에 주의를 집중한다.

2. 주체적 존재와 자발적 반성

박범신의 『나마스테』는 신우(한국 여성)가 카밀(네팔 남성)과 사
비나(네팔 여성)를 만나고, 카밀을 사랑하게 되면서 산업연수생들의
어려운 처지에 공감한다는 내용이다. 본고가 주목한 것은 『나마스테
』에서 동일한 사태에 대하여 등장인물들의 의미부여가 매우 상이하
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즉 『나마스테』에서 다르카 사태는 작가의 집
필 동기이면서,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의 강제추방반대 농성 서사가
본격화되는 핵심 사건인데, 이 사건을 대하는 등장인물들의 자세가
매우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후설의 지향성으로 볼 때, 사태
그 자체를 바라봄에 있어 등장인물들의 의식이 다르다는 것은 『나마
스테』의 선택의식을 알게 해준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주요등장인물
이 다르카 사태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통해 『나마스테』의 선
협의식에서 지향된 주체(노에시스)를 살펴보겠다.

먼저 신우를 보자. 신우는 손재주가 좋았던 자신의 아버지를 꼭
빼닮은 카밀에게 끌린다. 신우는 “나는 카밀의 의자, 카밀의 그네에

천연희, 『현대소설을 통해 본 이주노동자에 대한 한국인의 태도』, 전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홍원경, 『한국소설에 나타난 외국인 노동자의 재현 양상- 박범신의 장편소설
(나마스테)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문화콘텐츠기술연구원 학술대회』, 2010

앉아서” 카밀이 했던 말인 “세상이 화안해요……라고, 나도 몰래 중얼거린 적도 있었다.”라고 고백할 만큼 그에게 감정이입 된다. 신우가 보여주는 감정이입은 후설이 타자에 이르는 대표적인 방법이다. 이 감정이입은 후설에서 타자는 곧 나 자신의 “지향적 변양” 혹은 “나 자신의 변양”⁹⁾이라는 의미를 지니는데, 『나마스테』의 신우도 이 같은 양상을 보여준다.

가) 틈만 나면 카밀이 있는 농성장으로 달려가는 것도 그 무렵의 내습관이었다. 카밀처럼 헌신에 대한 신념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은 아니었다. 밤낮없이 그때 내 머릿속을 지배했던 것은 오직 한 가지, 카밀을 지키겠다는 것뿐이었다. 미국 땅에서 아버지와 오빠를 잃은 것만 해도 뼈에 사무치는데, 내 조국에서 더 이상 나의 가족을 잃을 수는 없었다. (중략) 집에서 잠드는 날보다 농성장에서 잠드는 날이 차라리 마음 편한 것은 물론 그곳에 카밀이 있기 때문이었다.¹⁰⁾

나) 나는 집에서나 농성장에서나 가장 험한 일만 골라 했다. 회의나 토론에는 짐짓 전혀 참석하지 않았다. 생각은 나를 오히려 힘들게 할 뿐이었다. 날이 갈수록 카밀이 생각을 많이 하게 됐으므로, 날이 갈수록 내 머릿속에선 생각을 지우는 게 옳다고 여겼다. 생각이란 것들은 겨우 내게 불안과 절망만을 주었다. 옴 아 흠 벤자 구루 페마 싯디 흠. 나는 틈만 나면 그래서 만트라를 반복해 암송했다. 만트라 암송은 내 머릿속에서 생각들을 몰아내는 데 좋은 무기였다. 나는 만트라를 입속으로 즐기차게 암송하면서, 청소를 하고 빨래를 하고 밥을 하고 설거지를 했다.¹¹⁾

9) 박인철, 『타자성과 친숙성- 레비나스와 후설의 타자이론 비교』, 『철학과 현상학 연구』, 24, 2005, 24면.

10) 박범신, 『나마스테』, 한겨레신문사, 2005, 316면.

11) 위의 책, 317면.

가)와 나)는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 카밀이 농성할 때 그 옆을 지키는 신우를 보여준다. 그녀가 농성장에 있는 이유는 “그곳에 카밀이 있기 때문”이며,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이유도 나)와 같이 자신의 생각을 지웠기 때문이다. 생각은 카밀이 하니까 자신은 카밀이 외우던 “만트라를 반복해 암송”하는 것이다. 이처럼 신우에게 영향을 미친 것은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인권을 지켜야 한다는 농성의 시발점인 다르카 사태가 아니라, 다르카 사태로 인해 농성의 중심에 선 카밀이었다. 즉 신우는 다르카 사태를 무주견적으로 이해하고 있었던 것이다. 판단하는, 평가하는, 노력하는 신우의 의식이 모두 카밀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신우가 카밀이라는 타자경험의 중심에 놓여 있음을 알게 해준다. 이렇게 신우는 카밀을 지향한다. 카밀은 곧 신우 자신의 “지향적 변양”이었던 것이다. 이를 데카르트의 명제를 빌려 말한다면, “신우는 (카밀을) 생각한다. 그러므로 신우는 존재한다.”라고 할 수 있겠다.

다) 다르카는 물론 죽어서 스리랑카로 돌아갔다.

전문 크리켓 선수생활을 하던 청년이 좀더 잘 살아보자고 한국에 왔다가 결국 방부 처리된 뺏뺏한 시신 상태로 싸구려 함석관에 밀봉되어 그의 조국으로 돌아간 후에도, 카밀은 성산동으로 되돌아오지 않았다. 텐징이 돌아와 카밀의 소식을 내게 전해주었을 뿐이었다.

“카밀…… 시청 옆…… 성당 갔어요.”

며칠 만에 돌아온 텐징이 말했다.

민해주도 관계하고 있는 시민단체들의 도움을 얻어 시작한 농성장에 카밀이 제 발로 찾아 들어간 것이었다.¹²⁾

라) “이 모든 죽음에 대한 책임의 대부분은 한국 정부에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에 시달리는 우리

12) 위의 책, 260-261면.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을 목인하면서 한국 경제의 밑바닥을 지탱해왔습니다……. 한국 정부에 묻습니다……. 아직도 부족합니까……. 얼마나 더 많은 우리가 죽어서 이 땅을 떠나가야 합니까……. 더 죽어야 한다면……. 이제 나도 죽겠습니다……. 내 친구들도 차례로 다 죽을 겁니다…….” (중략) 카밀이 쉿소리로 소리 지르고 있었다.¹³⁾

그러나 카밀에게 다르카 사태는 다)와 라) 같이 사태 그 자체로써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카밀은 “제 발로” 농성장을 찾아가고, 가장 앞장서서 이주노동자의 억울한 죽음을 막아달라고 한국정부를 향해 소리친다. 카밀은 다르카 사태를 통해 스스로 반성하였던 것이다. 그 결과 카밀과 그의 동료들이 경험해왔던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의 원인이 한국 정부의 이분법적인 분리정책에서 비롯된 사회적 잘못임을 성토히게 된다. 즉 카밀은 다르카 사태를 통일적인 관점 아래서 재구성하는 능동적인 의식 활동을 한 것이다. 후설의 지향성에서 반성은 ‘봄과 피악함’의 성격을 갖는다¹⁴⁾고 하는데, 카밀도 자발적 반성을 통해 주체적 존재가 된 것이다. 데카르트의 명제를 빌려서 말한다면 “카밀은 (사태 그 자체를) 생각한다. 그러므로 카밀은 존재한다.”라고 할 수 있겠다.

마) 어떤 섬유회사에서 연수받는 걸로 하고 사비나가 처음 받은 비자, 디(D)쓰리, 1500불 들여, 여기 왔습니다. 연수생은 일 년 연수받고 나서 자격시험 되면, 이팔(E-8) 체류허가 나와요. 그때까지 언젠든지 회사에서 핑계 만들어 쫓아낼 수 있어요. 오자마자 여권하고 나그릿타, 네팔 주민증 뺏겼지요. 외국인 노동자, 산업연수생, 지, 지침엔 연수생 여권은 본인이 갖고 있어야 한다고, 제7조에 나와 있지만요, 회사들 안 지켜요.

13) 위의 책, 280면.

14) 닛타 요시히로, 박인성 옮김, 『현상학이란 무엇인가』, 도서출판 b, 2014, 26면.

여권 빼앗아 놓아야 맘대로 할 수 있으니까요.

여기 와서 건강검사 또 받았는데, 사비나, 폐결핵 의심된다, 그렇게 나왔어요. 일 안 시키고 무조건 네팔로 돌아가라고 하더라고요. 네팔에서 건강검사 받을 땐 아무 이상이 없다고 했는데, 폐결핵, 비행기 타고 오는 도중 걸렸을 리도 없고, 그래서, 사비나 다른 병원에서 검사시켜 달라고 했더니, 이년아, 무조건 이년아, 그러고 나서, 이년아, 니네 나라 의사는 나도 한다, 니네 나라 의사가 우리 의사보다 더 낫단 말이나, 하더라는 거예요. 회사 부장님이요. 사비나가 맨 처음 여기 와서 배운 말, 이년이에요. 그 다음 배운 말 씨팔년, 이구요. 결국 사비나 자기 돈 들여서 가슴 사진 다른 병원에서 찍었는데 아무 병 없다고 결과가 나왔어요. 그 바람에 두 주일이나 일 못했지요. 두 주일치 월급 안 나와요. 밥값, 방값, 나와요. 한 달 지나서 돈 하나도 안 주더라고요. 강제적립금도 있어요. 나중에 귀국할 때 한꺼번에 준다면서 무조건 월급에서 떼는데요, 회사 이탈하면 그 돈 못 받아요. 이탈 안 해도 안 주는 일 아주 많아요. 적립금 떼고 밥값 방값 떼고, 유니폼값까지 떼고, 그랬더니 사비나, 첫 달 월급, 오히려 마이너스 되더라는 거예요. (중략) 밥 사주고 위로해주고 가불금도 주는 바람에 사비나, 감격해서 울었어요. 그런 사비나, 경리 과장이 데려간 데는 바로 여관, 러브호텔이었어요, 누나. 물론 다 나중에 사비나한테 들은 얘기에요.¹⁵⁾

반면 사비나에게 다르카 사태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마)는 『나마스테』에서 사비나가 가장 지독한 폭력의 피해자임을 알게 해준다. 사비나는 첫째, 명명에 따른 폭력의 피해자가 된다. 사비나는 이유도 없이 “이년아” “씨팔년”으로 명명된다. 사비나에게처럼 “발설하는 것이 금지될 이름들을 부여한다는 것, 이것이 언어의 시원적 폭력”¹⁶⁾이다. 두 번째, 성폭행의 피해자가 된다. 사비나는

15) 박범신, 앞의 책, 90-91면.

16) 자크 데리다, 김응권 옮김, 『그라마톨로지에 대하여』, 동문선, 2004, 203면.

산업연수생이 된 직후 겨우 가불금 5만원 때문에 경리 과장에게 성폭행 당한다. 이 성폭행 사건으로 “아주 암전한 표정과 달리 어딘지 모르게 고풍적인 느낌도 함께 가진” 매혹적이었던 사비나는 사라져 버린다. “카트만두에서의 사비나는 온데간데없고, 이상한 화장, 이상한 옷을 입은, 아주아주 이상한 네팔 여자가 세면기를 양팔로 안고서 웅, 꾸르르르, 더러운 것들 마구 토하고” 있었던 것처럼, 카밀이 사비나를 한국에서 처음 만났을 때, 그녀는 매음을 하고 있었다. 이처럼 한국에 산업연수생으로 도착하자마자 사비나는 박탈과 결핍 그리고 추방의 상황에 몰린다. 그런데 이주노동자로서도, 여성으로서도 폭력의 피해자였던 사비나는 설상가상 미등록 이주노동자 강제추방정책의 직접적 피해자까지 된다. “우리가 하기 싫은, 더럽고 위험하고 힘든 일들을 시키기 위해, 온갖 불법적인 구조와 착취의 시스템을 우리 스스로 만들어놓고서 그들을 불러들인 후, 이제 구조 개선을 명분 삼아 그들을 무자비하게 내몰겠다는”¹⁷⁾ 한국 정부에 의해 사비나는 쫓기는 몸이 된 것이다. 주목할 것은 이렇게 항상 박탈, 결핍, 추방의 상황에 내몰리는 사비나가 농성에는 관심조차 없다는 점이다. 사비나는 한국의 이주노동자 정책이 심각한 불법과 탈법에 놓여있다는 점을 몸 그자체로 보여주는 인물인데도, 그녀는 오히려 “단속 기간이 끝난 틈을 이용하여 예전에 근무하던 공장이나 ‘제조업’ 분야의 일을 찾아” 돈 벌러 가기 급급하다. 사비나에게는 다르카 사태가 그저 하나의 대상일 뿐이었던 것이다. 이렇게 사비나는 다층적인 억압에 온 몸이 착취당하면서도 자각하지 못하는 여성으로 형상화되고 있다. 이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왜냐하면 제3세계 여성의 경우, 몸 자체가 이중·삼중으로 착취가 일어나는 현상이며, 나의 몸은 나라의 존재의 주체적 방식¹⁸⁾이라는 점에서 볼 때, 「나

17) 박법신, 앞의 책, 258면.

18) 태혜숙, 『탈식민주의 페미니즘』, 여이연, 2001, 154면.

마스테』는 사비나라는 서발턴 여성의 주체화를 가로막고 배제하는 서사이기 때문이다. 이를 데카르트의 명제를 빌려서 말한다면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라는 주체화가 전혀 일어나지 않는 사비나는 “본성상 교육되기 어려운 날 것의 인간”¹⁹⁾이었던 것이다.

정리하면, 『나마스테』에는 다르카라는 이주노동자의 죽음이 그려져 있다. 이 다르카 사태는 동일한 하나의 현상이다. 그런데 다르카 사태를 보면서 카밀, 신우, 사비나는 전혀 다른 의미 현상을 나타낸다. 다르카의 죽음을 보면서, 카밀은 온갖 불법적인 구조와 착취의 시스템을 만들어놓고서 외국인 노동자를 불러들인 한국정부에 그 책임이 있음을 깨닫는다. 그에 비해 신우는 카밀이 다르카처럼 죽을 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빠져 카밀이 있는 농성장의 모든 허드렛일을 열성적으로 할 뿐이다. 반면 사비나는 다르카의 죽음에도 이주노동자 강제추방반대 농성에도 아무런 관심이 없다. 결국 다르카의 죽음이라는 하나의 동일한 사태는 세 사람의 주요등장인물에게 각각의 다른 의미를 가진 사태들로 변화한 것이다. 따라서 『나마스테』에서 의식화의 나타남(지향성)은 카밀을 지향된 주체로 하고, 서발턴 여성을 객체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자본주의와 모귀지향적 사랑

박범신의 『나마스테』는 “자본주의의 치열한 경쟁논리가 가장 선도적으로 도입되어 있는 우리나라”에 사는 “유순하고 속달한” “가난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았다. 그렇게 “자본주의 구조화된 세계에서 순정을 지킬 수 없었던 이들”²⁰⁾의 이야기를 담은 것이다. 이 『나마

19) 가야트리 스피박, 태혜숙·박미선 옮김, 『포스트식민 이성 비판』, 갈무리, 2005, 9면.

스테』에서는 한국에 산업연수생으로 들어온 제3세계인의 삶이, 미국행 비행기를 오르던 1세대 전 한국인의 삶과 다르지 않다는 점이 주목된다. 이는 『나마스테』가 우리나라를 넘어서 전지구적 자본주의에 대한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을 짐작하게 해주기 때문이다. 이렇게 전지구적 자본주의로 인해 펼쳐지는 병폐를 지적하고 있는 『나마스테』는 자본주의 병폐 속에서도 싹트는 사랑, 국경을 초월한 사랑에 초점을 두고 서사를 구성하고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주요 등장인물의 사랑이 어떻게 형상화되어 있는지를 통해 『나마스테』의 선험의식에서 지향되는 대상(노에마)을 살펴보겠다.

가) 나는 밤새 꼬박 그의 머리맡을 지키고 앉아 있었다. 간헐적으로 그는 헛소리를 했고 또 고열에 시달렸다. 나는 얼음주머니로 그의 얼굴은 물론 가슴과 겨드랑이도 일일이 닦아주었다. 이상한 것은 그가 도무지 일정한 거리를 두어야 할 이성의 존재로 느껴지지 않는다는 사실이었다. 구태여 말하자면 오랫동안 품에 안아 키운 눈물겨운 피붙이 같았다. (중략) 나는 그를 품에 안고 물수건으로 그의 술 많은 눈썹과 오탁한 청동빛 코와 빨그레한 입술을 닦아주었다. 입맛을 다시는 그의 얼굴을 들여다보다가 나도 몰래 브래지어 호크를 열고 젖을 꺼내 물리고 싶은 충동에 사로잡힌 순간도 있었다.²⁰⁾

나) 잠든 그는 어린 양처럼 유순했고, 바로 그것이 내가 그동안 만났던 많은 한국인, 미국인과 다른 점이었다. 그래서 그는 언제나 젖을 꺼내 물리고 싶은 어린아이였으며, 동시에 내게 무한한 모귀를 움트게 만드는 스승 같은 존재였다. (중략) 나는 그때 카밀인지, 혹은 카밀이 아닌지, 한 소년을 품에 안고 있었으며, 내 집 뒤에 자리잡은 솔미곰파의 마니차 돌아가는 소리를 들었고, 집집마다 청, 백, 녹, 황, 홍색의 오색 카따들이

20) 박범신, 앞의 책, 46-47면.

21) 위의 책, 67-68면.

모랫바람에 휘날리는 것을 보았다.²²⁾

다) 어머니는 결코 누굴 사랑으로 이기겠다고 생각했을 리도 없고, 또 아버지 카밀과 함께 죽자고 생각했을 리도 없었다. 어머니는 다만 깊은 사랑으로 불꽃이 된 아버지를 당신 품 안에 안아서 살릴 수 있다고 믿었을 터였다. 갈망과 헌신의, 모귀가 어머니를 아버지에게 밀어냈을 것이었다. 함께 죽는 것이 함께 사는 것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었다.²³⁾

가)는 사비나가 도망가자 삼일을 혼절하여 앓는 카밀을 간호하는 신우의 모습이다. 간호하는 신우는 어린 아들에게 젖을 물리는 어머니의 형상이다. 이날 이후 둘은 키스를 나누고, 출퇴근을 같이하며, 만트라를 외우는 행복한 일상을 보낸다. 이에 대해 신우는 “카밀을 사랑했으며, 카밀을 사랑한다고 용기있게 인정하고 나자 만트라가 속 내 속으로 들어와 눈부시게 터진 격이었다.”고 고백한다. 신우의 이 같은 행복은 그녀만이 카밀에게 일방적으로 동화되는 양상이다. 나)는 신우가 카밀과 동침하는 장면이다. 성관계를 할 때에도 신우는 어린 아들에게 젖을 물리는 어머니의 형상을 하고 있다. 이 동침으로 애린을 임신하게 된 신우는 카밀과 결혼하게 된다. 이후 신우는 카밀을 더욱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지킨다. 강제추방에 대한 불안과 고통을 못 이겨 자살하는 장기체류 외국인 노동자들의 은신처로 자신의 집을 내어주는 것은 물론, 그들을 위해 장보기, 약사기 등 모든 일을 도맡아한다. 그 결과 외국인 노동자 모두가 신우를 “락슈미”로 칭송한다. 락슈미는 “비슈누신의 아내이자 부귀와 행복을 가져다” 주는 우유의 바다에서 연꽃을 타고 나타난다는 여신이다. 다)는 딸 애린이 화자가 되어 어머니인 신우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부분

22) 위의 책, 159-161면.

23) 위의 책, 379면.

이다. 여기에서 신우가 카밀과 함께 불타죽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카밀이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강제추방하지 말라며 호텔에서 분신한 후 뛰어내렸는데, 그 불꽃을 신우가 품에 안았던 것이다.

주목해야 할 것은 가) 나) 다)에서 카밀과 결혼하면서 서발턴 여성이 된 신우를 드러내는 방식이다. 카밀을 아들처럼 품었던 신우가 그의 헌신적인 아내가 되고, 많은 노동자를 구원하는 여신이 된다는 것은, “여신-어머니라는 인도의 헤게모니적 문화적 재현”²⁴⁾을 답습하는 방식인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찬양의 주체”는 “바로 그 남성들과 암묵적으로 공모하는 결과를”²⁵⁾ 낳는다. 그래서 신우는 세상을 떠난 남편의 화장용 장작더미 위에서 사티(Sati, 같이 타 죽다) 의식을 행하는 ‘어머니 인도’의 신화를 그대로 답습하였던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작가 박범신이 남성적인 것을 해체하기보다는 여성적인 것을 찬양하고 싶어 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동시에 『나 마스테』가 여성 억압적이라는 점도 알 수 있다.

라) “여기 와서…… 주소를 가지고 사비나 집 찾아가 봤더니…… 사비나, 노루보 형과 살고 있더라구요. 노루보 형은 스물여덟 살이고 여기 온 지 오래돼서 월, 월급도 많이 받아요. 사비나 말로는 방 얻을 돈이 없어서요. 형의 방에 임시로 있었다고 했어요.”

“말도 안돼.”

“사비나 카트만두 집, 가난해요. 사비나 동생들 일곱 명이나 돼요. 월급받아도 카트만두에 돈 보내느라 사비나, 정신이 없더라고요. 카트만두로 전화하면 사비나 부모님들, 동생들, 사비나한테 돈 얘기만 하면서 막 울어요. 워낙 착한 언니거든요. 사비나요. 나는 이해할 수 있어요. (중략) 사비나는 돈밖에 생각 안 해요. 카트만두에선 그런 여자 아니었는데, 사비나, 왜 그렇게

24) 가야트리 스피박, 태혜숙 옮김, 『다른 세상에서』, 여이연, 2004, 485면.

25) 가야트리 스피박, 태혜숙·박미선 옮김, 앞의 책, 178면.

금방 변했는지 모르겠어요. 길가다가 예쁘게 차려 입은 한국 여자들 보면 미치겠다구 그래요. 돌겠어. 그 말이 아마 사비나가 제일 잘하는 한국말일 거예요. 돌겠어. 돌겠어. 이 나라에선 정말 돌아버리겠어. 사비나는 만날 그래요. 사비나 아버지 병에 걸려서 잘 움직이지도 못해요. 난 사비나, 이해할 수 있어요.”²⁶⁾

마) 사비나가 남긴 편지는 네팔어로 쓰여져 있었다. 나를 찾지 마……라고, 사비나는 썼다고 했다. 언젠가 돈은 꼭 갚겠다는 말도 있었다. 그동안 사비나에게 돈을 준 것만 해도 적은 액수가 아니라는 걸 나는 비로소 알았다. 갖가지 명목으로 사비나가 돈을 빌려갔기 때문에 카밀로서는 목돈을 만들거나 네팔 집으로 돈을 보낼 수도 없었다. 그래서 거의 4년 가까운 시간 동안 카밀의 통장에 쌓인 것이 천여 만 원쯤 된 것인데 마침내 통장째 훔쳐 달아나버리고 만 것이었다.²⁷⁾

「나마스테」의 남성중심주의는 여성을 어머니, 창녀로 구분하는 이분법적 사유에서도 찾을 수 있다. 라)와 마)는 사비나가 부정적으로 형상화되었음을 알게 해준다. 사비나는 라)처럼 돈만 아낄 수 있다면 어떤 남자와 살아도 상관없으며, 마)처럼 도둑질도 대수롭지 않게 한다. 문제는 라)와 같은 부정적 묘사가 확대된다는 점이다. “한때는 어떤 한국 남자, 어떤 회사 부장님, 방, 원룸 얻어주어 거기 산다는 말도 들었어요. 그 한국 부장님이 퇴근하면 사비나한테 들렀다가 간다는 거예요. 아내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노루보도 그래요. 카트만두에 아내와 자식들, 있어요.” 이 같은 소문은 결국 사비나가 한국에서 현지처이거나, 낮에는 공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단란주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매춘부라는 것이다. 그래서 카밀이 아무리 사비나를 “이해할 수 있다”고, “히말라야 노새”처럼 힘들게 일하는 상

26) 박범신, 앞의 책, 48-49면.

27) 위의 책, 61면.

처투성이의 여가장이라고 옹호해도, 신우에게 “사비나는 도둑일 뿐” 이듯이 부정적이다.

그러나 사실 알고 보면 사비나는 희생과 헌신의 삶을 산 여가장²⁸⁾이다. 그녀는 가족들의 “부름에 제 몸이 만신창이 될망정 한사코 부응” 했다. 그래서 “그녀는 가족들에게 이를테면 관음보살, 또는 우유의 바다에서 현현한 여신 락슈미였다.”²⁹⁾ 그렇다면 사비나에 대한 오해는 어디에서 시작된 것일까. 그것은 바로 사비나가 ‘말없는’ 제3세계 서발턴 여성이라는 점에서 비롯된다. 사비나의 처지는 언제나 카밀의 말을 통해서만 전달된다. 게다가 사비나는 같은 여성인 신우와도 거의 대화하지 않는다. 그래서 신우조차 사비나를 이해할 수 없다. 또한 그래서 사비나는 결코 신우와 똑같은 락슈미로 이해되지 않는다. 즉 작가 박범신은 『나마스떼』에서 사비나(창녀)를 신우(어머니 인도)의 반대편에 세우고 있었던 것이다.

정리하면, 『나마스떼』는 전지구적 자본주의로 인해 병들어 가는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아내-어머니처럼 헌신을 강요당하는 여성의 젠더 역할에서 찾고 있었다. 그래서 여가장인 신우의 사랑은 락슈미 여신의 현현으로, 어머니 인도의 재현으로 찬양의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똑같은 여가장인 사비나는 전혀 다르게 재현되었다. 사비나의 사랑은 그녀의 가족들에게는 락슈미일지 모르지만, 창녀의 재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우와 사비나의 공통점이 락슈미라는 점에서 볼 때, 『나마스떼』는 모귀지향

28) 제3세계여성에게 여가장의 이미지를 들썩우는 것은 여성 억압적이다. 이에 대해 태혜숙은 벨 훅스의 이론을 가져와 설명한다. 벨 훅스는 여가장을 둘러싼 흑인여성 이미지가 백인남성 백인여성 흑인남성중심 사회가 만들어낸 이데올로기라는 것이다. 여성을 여가장으로 신화화하는 이미지는 인종적으로 성적으로 흑인여성이 받아들인 이중적 억압을 은폐할 뿐이며 흑인여성의 주체성을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은커녕 기계처럼 일만 하는 사이보그들을 연상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태혜숙, 『탈식민주의 페미니즘』, 여이연, 2001, 52-56면.

29) 박범신, 앞의 책, 273면.

적 사랑을 추구한 작품임을 알 수 있겠다. 따라서 『나마스테』에서 지향되는 대상(노에마)은 모귀지향적 세계임을 알 수 있다.

4. 배타적 문명과 공동체 지향의식

박범신의 『나마스테』에서 지향된 주체인 카밀에게 “코리안 드림은…… 돈이 아니라 사랑 같은 거였다.”³⁰⁾ 카밀은 한국에 산업연수생으로 간 사비나가 행방불명이 되었기에 사랑하는 사비나를 찾기 위해 한국에 간 것이다. 그리고 사비나를 찾는 동안 카밀은 선인장 농장, 박스 공장, 노트 공장, 청바지 공장으로 일자리를 옮긴다.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억울한 일을 직접 겪었기에 이주노동자의 인권을 지키는 투쟁에 가담하게 된 것이다. 『나마스테』의 지향되는 대상이 모귀지향적 세계인 것도 이 때문이다. 즉 『나마스테』는 한국의 산업연수생 제도와 카밀의 사랑이 얽히고설켜 의미를 생성하고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나마스테』의 지향된 주체와 지향되는 대상이 어떤 상관관계를 가지는지를 살펴보겠다.

『나마스테』에는 작가의식이 두 가지 나타난다. 첫째는 인종우월주의를 비판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인종우월주의가 사회구조적 불평등에서 비롯된다는 것이다. 미국 사회의 구조적 편견과 한국 사회의 구조적 편견은 같으며, 이 같은 “다른 인종에 대한 편견, 사람에 대한 편견은 가장 무서운 질병”³¹⁾이라는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나마스테』의 두 의미가 하나로 통합된다는 점이다. 그것은 카밀이 했던 말인 “나마스테”로 통합된다. 나마스테는 “참다운 악수 같은 인사말”로, “소통을 위한 세계의 모든 언어가, 다” 이

30) 위의 책, 96면.

31) 위의 책, 130면.

속에 포함된다. 그렇게 『나마스테』는 배타적 세계에서의 소통을 희망하고 있었던 것이다. 후설의 지향성에서도 이처럼 우리와 다른 사회적 환경이나 문화권의 사람에 대해 가지는 왜곡을 비판하고 의식을 그 본래의 모습으로 되돌려놓는³²⁾ 것은 중요한 사안이다.

가) 나, 사고쳤어요. 사고치고 도망은 건데요, 나, 카밀 때문에 난 사고, 아니었어요. 청바지 만드는 그 공장에 외국인 노동자들 열여섯 명이나 있었어요. 네팔 사람, 방글라데시 사람, 스리랑카 사람, 필리핀 사람, 카자흐스탄 사람, 그리고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에서 온 흑인 두 명, 이렇게요. 영업 부장님, 차 몰고 들어오는데 나이지리아에서 온 마리오가 청바지 박스 메고 오다가 차 갑자기 들이닥치니까 당황해서 넘어졌던 거 봐요. 영업 부장님, 특히 마리오 미워해요. 아니 얼굴 검은 사람 미워해요. 흑인 제일 미워하고 아시아 사람도 얼굴 검은 순서대로 미워하는 사람이예요. 이유는 없어요. 깜둥이만 보면 무조건 패고 싶다고 영업 부장님, 직접 말하는 거 들은 일도 있어요. 다른 사람한테 들은 이야기인데요, 영업 부장님 군대에서 미군 장교 돕는, 그래요, 카투사, 그거였는데요. 흑인 장교 밑에 있어서 그 흑인 장교한테 복수할 거 있을 거라고, 한국 직원이 말해주었어요. (중략) 영업 부장님, 엮어진 마리오 머리통 구두발로 짓이겼어요. 자기를 욕보이려고 일부러 넘어졌다 그건데, 마리오는 그럴 생각조차 할 수 없는 바보같이 착한 애였거든요.³³⁾

카밀이 신우와 만나게 된 것은 바로 이 가) 사건 때문이다. 청바지 공장 영업부장의 행패에 일방적으로 참혹하게 구타당하는 마리오를 구하려다가 카밀은 도망자 신세가 되었고, 그렇게 카밀은 신우의 집 앞에 지쳐 쓰러져 있었던 것이다. 주목할 것은 영업부장의 증

32) 박인철, 앞의 논문, 26면.

33) 박범신, 앞의 책, 107-108면.

오심이 자신이 군대에서 겪었던 인종차별을 반복하는 양상이라는 점에서, 영업부장의 폭력은 인종차별이 피해자(영업부장)에서 피해자(마리오)로 확대재생산 되는 양상이라는 점이다. 그러나 파농이 말했듯이 “인종차별이란 한 인종이 다른 인종에 대해 갖는 근거 없는 증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또한 보다 강력하고 보다 부유한 한 인종이 자신들보다 열등한 다른 인종에 대해 갖는 경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³⁴⁾ 즉 근거 없는 증오와 경멸로 점철된 배타적 문명의식에 마리오와 카밀은 짓밟힌 것이다.

하지만 사실 한국에 온 카밀은 차별받을 아무런 이유도 없다. 손재주가 좋은 카밀은 음식 솜씨도 탁월해서 거의 못 만드는 한국음식이 없을 정도다. 한국말 공부, 한국 음식 공부, 한국 역사 공부도 열심히 하는 탐구심이 아주 많은 학생이다. 그런데도 공장에서 카밀의 호칭은 “암마”, “네팔 놈”, “새끼”처럼 명명에서부터 폭력적이다. 그만큼 공장의 한국인들은 “우리는 직원, 너희는 노동자. 우리는 주인, 너희는 노비”라는 배타성을 가졌던 것이다. 이 때문에 카밀은 변한다. 외국인 노동자에게 “세상이 캄캄”하기만한 상황을 바꾸기 위해, “적반하장이…… 정상인 세상”을 바꾸기 위해 카밀은 농성장으로 향한다. 이를 『나마스테』에서는 카밀이 “개인적인 삶으로부터 전체적인 공동체의 삶으로 나가는 길”³⁵⁾을 걸은 것이라고 묘사하는데, 이는 “나와 타자간의 분리보다는 결합이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공동체성”³⁶⁾을 중요시한 후설과도 통한다.

나) “세, 세상이…… 화안……해요…….”

내 사랑 카밀, 당신이 내게 준 첫 문장이 이것이다.

산벚꽃 그늘에 쓰러져 누워 있던 당신의 이마를 뒤덮은 머

34) 프란츠 파농, 이석호 옮김, 『검은 피부, 하얀 가면』, 인간사랑, 1998, 150면.

35) 박범신, 앞의 책, 251면.

36) 박인철, 앞의 논문, 27면.

리, 상처 입은 팔, 청동빛 입술……. 그러나 보리차 대접을 입에 물려주자 한 대접의 물을 다 마시고 나서 더듬더듬, 당신이 내뱉은 말이 그것이었다. (중략) 그리고 이어서, 나마스테.

당신은 비로소 제정신이 돌아온 듯 곧 당황한 표정으로 일어서서 두 손 합장해 머리 위까지 올렸다가 고요히 앞가슴으로 내리며 인사했다. 세상에서 본 가장 공손한 인사법이었다. 얼마나 고요하고 공손했으면 그 말의 뜻도 모르면서 ‘나마스테……’ 나도 따라 인사했겠는가.³⁷⁾

나)는 신우가 남편과의 강렬했던 첫 만남을 떠올리는 장면이다. 바로 여기에서 그녀가 헌신과 모귀의 상징인 어머니가 된 이유를 짐작할 수 있다. 신우는 카밀과의 첫 만남에서부터 “말의 뜻도 모르면서” ‘나마스테’라고 따라했듯이, 그를 “따라” 변화했던 것이다. 그 결과 카밀이 죽기 직전에 신우를 향해 ‘아마’(어머니)라고 부를 만큼 모귀가 된다. 나)는 카밀이 농성장에서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눈빛이 형형해가던 시절이었다. 아니나 다를까 당시 신우도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헌신하는 카밀을 무조건 믿고 따랐다. 그만큼 신우의 사랑은 카밀을 지향했기에 다른 이유가 필요 없었던 것이다. 신우는 그저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밖에 없었다. 즉 신우도 “나와 다른 것을 받아들이는 품”이 넓은,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는 여성이 된다.

이에 반해 사비나는 끝내 투쟁현장에 참여하지 않는다. 그런 사비나 이기에 카밀과 신우 두 사람과는 대조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언제나 청결한 카밀과 대조되는 사비나이며, 힘든 일도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땀투성이 카밀과 대조되는 사비나이다. 사비나는 신우와도 대조적인데, 신우는 책 읽기를 좋아하는 반면 사비나는 책 읽기를 싫어한다. 강제추방반대 농성 때, 신우는 아픈 이들을 위해 약을 짓는 반면 사비나는 नेपाल사람도 높은 사람 낮은 사람으로 갈라

37) 박범신, 앞의 책, 305-306면.

대접해야 한다고 말하는 안하무인이다. 즉 신우는 모두를 포용하고 용서하는 여성인 반면, 사비나는 환자 들이 더 들어와 함께 생활하니 노골적으로 인상을 찌푸리는 알뜰기 그지없는 여성인 것이다. 이는 인물의 긍정성과 상관관계를 가진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나마스테』는 인물의 긍정성을 ‘카밀>신우>사비나’로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카밀은 비슈누신(언제나 환한 이미지를 가진 여러 태양신의 우두머리)에, 신우는 락슈미신에, 사비나는 시바신(파괴하는 신)에 비유되는 것이다.

그러나 『나마스테』는 탈식민적 페미니즘으로 볼 때 커다란 문제점을 안고 있다. 그것은 제3세계 서발턴 여성인 사비나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다는 점이다. 사비나가 경리 과장에게 성폭행 당한 일은, 그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다. 하지만 『나마스테』는 성폭행 때문에 겪은 사비나의 아픔과 슬픔은 완전히 생략된 채, 사비나가 오직 돈밖에 모르는 사람으로 변했다는 것에만 집중한다. 사비나처럼 “별로 주목되지 못한 서발턴의 역사를 펼쳐야 할 곳은 바로 이 불운한 꼭두각시(대문자 여성)의 그림자 속에서”³⁸⁾다. 즉 제3세계 남성보다도 열악한 위치에 처한 제3세계 여성은 섬세하게 다루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나마스테』는 사비나를 카밀의 선함을 돋보이게 하는 배경으로서 다루었다. 그래서 『나마스테』는 카밀이 다른 남자와 동거 중인 사비나를 무조건 믿고 좋아하고 신뢰하며 행복해한다는 것을 강조하였으며, 카밀은 죽을 때까지도 “사랑을 믿었고 세상을 받아들였으며 그가 품고 있는 신들에게 언제나 경배했다.”는 것을 강조하였던 것이다. 이처럼 『나마스테』에 나타나는 의식은 언제나 그 대상이 카밀이었다.

정리하면, 『나마스테』는 인종차별주의와 같은 대립적 이원론의 도식을 넘어서 공동체성을 지향한 작품이었다. 이를 사랑의 결합성

38) 가야트리 스피박, 태혜숙·박미선 옮김, 앞의 책, 366면.

으로 그려내고 있었다. 그래서 지향된 주체인 카밀을 사랑하고 그에
 게 동화된 신우는 긍정적인 반면, 카밀에게 끝까지 동화되지 않은
 사비나는 부정적이다. 하지만 이는 『나마스테』가 “카르마”로 연결된
 복잡한 세상과의 소통을 지향한 작품이면서도 그 지향성의 지평적
 성격에서 여성은 소외되어 있는 양상이었다. 그만큼 『나마스테』는
 작가 박범신이 남성중심주의로 재현한 작품이었던 것이다. 그래서 『
 나마스테』에는 전지구적 자본주의 세계 속에서 여성(여가장)의 현
 신과 희생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남성중심주의가 재생산되고 있
 는 것이다. 따라서 후설의 지향성으로 볼 때 박범신의 『나마스테』는
 서발턴 카밀이 지향된 주체(노에시스)이며, 모귀지향적 세계가 지향
 되는 대상(노에마)인 작품이었다. 그리고 이 둘은 전지구적 자본주
 의로 인해 사회구조적 불평등이 만연해 있는 세계와 상관관계를 가
 졌다. 이렇게 공동체를 지향하는 주체와 객체의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나마스테』인 것이다.

5. 나오며

후설에게 있어서 지향성의 중심과제는 대상을 그 자체에 있어서
 파악하는 것이다. 우리의 의식은 일련의 감각정보를 그저 조각난 채
 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 정보가 어떤 통일적인 관점 아래에서
 의미를 가질 수 있도록 재구성되기 때문이다. 비록 후설 이후 많은
 현상학자들이 후설에 대한 이단의 역사를 쓰고 있지만, 이 ‘사태 그
 자체로’ 돌아가자는 후설의 정신만큼은 계속되고 있다. 주목할 것은
 탈식민적 페미니즘에서도 서발턴 여성이 정말로 말하고 싶었던 것
 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를 전위하기 위해서는 진술을 ‘그 자체로’ 읽
 고 또 그 읽기 행위를 성찰하는 작업이 중요하다³⁹⁾고 본다는 점이

다. 이렇게 후설의 지향성은 탈식민적 페미니즘의 서발턴 논의와 통한다.

후설은 감정이입을 통해 이질성보다는 동질성을, 나와 타자간의 분리보다는 결합을,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공동체성을 중시한다. 후설은 서로 다른 사람을 하나로 묶는 사랑의 결합성을 지향한 것이다. 이렇게 후설에게 지향성은 우리와 다른 사회적 환경이나 문화권의 사람에 대해 가지는 왜곡을 비판하고 의식을 그 본래의 모습으로 되돌려놓는 것이다. 주목할 것은 언제나 대상으로 향하는 이런 의식이 박범신의 『나마스테』에 나타난다는 점이다. 그렇기에 『나마스테』에서 핵심어로 등장하는 “나마스테”라는 인사말이 “세상과의 소통”을 의미한다는 점은 더욱 특별하게 다가온다. 하지만 아쉽게도 이 소통의 현장에서 여성은 배제되어 있었다. 『나마스테』가 “카르마”로 연결된 복잡한 세상과의 소통을 지향했으면서도 그 지향성의 지평적 성격에서 여성은 소외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박범신의 『나마스테』는 상식적인 세계관과 자연적 태도를 버리고 선험적 태도를 취하는 지향성으로 탈식민적 페미니즘의 서발턴 논의가 필요하다.

요약하면, 박범신의 『나마스테』는 한국에 산업연수생으로 들어온 제3세계 서발턴의 삶이, 미국행 비행기를 오르던 1세대 전 한국인의 삶과 상관관계를 가지는 구조이다. 그래서 『나마스테』는 나와 타자를 품는 포용적인 사랑을 지향하게 된다. 그 결과 『나마스테』는 그동안 주목받지 못한 서발턴의 역사를 펼쳐내어, 국제노동 분업상 사회화된 자본의 맞은편에서 이분법적 인식론의 폭력에 놓여있는 서발턴을 재현해냈다는 의의를 지니게 된다. 즉 해체의 면으로 볼 때, 소수집단의 목소리를 재현하여 이 시대의 지배적 관념들에 도전한 치료제 역할을 한 것이다.

하지만 박범신의 『나마스테』는 해체의 면으로 볼 때, 독성도 지니

39) 가야트리 스피박 외, 로절린드 C. 모리스 엮음, 앞의 책, 15면.

고 있다. 첫 번째 독성은 주체적 존재와 자발적 반성에서 찾을 수 있다. 의식화의 과정이 남성중심적이라는 점이다. 『나마스테』는 불법체류자가 될 수밖에 없는 서발턴 노동자의 투쟁을 담았는데, 그 중심은 카밀이었다. 즉 『나마스테』에서 의식화의 나타남(지향성)은 서발턴 남성을 능동적 주체로 하고, 서발턴 여성을 수동적 객체로 하여 배경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두 번째 독성은 자본주의와 모귀지향적 사랑에서 찾을 수 있다. 사랑의 지향성이 일방향적이라는 점이다. 신우의 사랑은 카밀을 지향하고, 카밀의 사랑은 사비나를 지향하며, 사비나에겐 사랑이 지향점이 아니다. 이 사랑의 지향성은 이면적 의미를 지닌다. 이면적 의미란 신우의 사랑은 인도의 풍습 '사티'를 꼭 빼닮은 무주체적인 것이며, 제3세계 서발턴 여성인 사비나의 사랑은 여성 배타적이라는 점이다. 이는 가족 지향적이며 희생적인 여가장이 재생산된다는 문제점을 가진다. 더 큰 문제는 제3세계 서발턴 여성의 목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는다는 점이다.

따라서 박범신의 『나마스테』는 인종차별주의와 같은 대립적 이원론의 도식을 넘어서 양자의 공존을 지향한 작품이다. 이를 위해 전 지구적 자본주의에 의해 생겨난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해체하려 한 것이다. 문제는 이를 서사화하는 과정에서 남성중심의 이분법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점이다.

■ 참고문헌 ■

- 김동규, 「후설과 더불어, 후설을 넘어서- 레비나스의 후설 비판과 지향성의 문제」, 『철학논집』 23, 2010, 175-201면
- 김상록, 「시간과 지향성- 후설의 시간의식과 현상학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 김현정, 「다문화소설에 나타난 이주민의 갈등과 그 해결 양상 비교 연구- 박범신의 <나마스떼>와 이창래의 <영원한 이방인>을 중심으로」, 조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
- 김희봉, 「후설의 노에마 개념, 그 의미와 한계」, 『철학과 현상학 연구』 38, 2008, 53-76면
- 문재원, 「이주의 서사와 로컬리티- <나마스떼>와 <잘가라, 서커스>에 재현된 이주 공간」, 『한국문학논총』 54, 2010, 301-331면
- 박인철, 「타자성과 친숙성- 레비나스와 후설의 타자이론 비교」, 『철학과 현상학 연구』 24, 2005, 1-31면
- 박진, 「박범신 장편소설 <나마스떼>에 나타난 이주노동자의 재현 이미지와 국민국가의 문제」, 『현대문학이론연구』 40, 2010, 223-239면
- 송인용, 「지향성 개념- 후설의 브렌타노 비판을 중심으로」, 『철학연구』 25, 1997, 159-182면
- 신호재, 「후설과 메를로-퐁티의 현상학에서 감각의 지향성 문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 유경수, 「문학과 현실의 소통의 가능성- 박범신의 <나마스떼>를 중심으로」, 『비교한국학』 16, 2008, 339-363면
- 윤영옥, 「21세기 다문화소설에 나타난 국민 개념의 재구성과 탈식민성」,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56, 2012, 367-397면
- 이도흠, 「<나마스떼>에 나타난 타자성의 두 양상」, 『기호학 연구』 34, 2012, 169-196면
- 이미림, 「2000년대 다문화소설에 나타난 이주노동자의 재현 양상」, 『우리문학 연구』 35, 2012, 317-346면
- 이수형, 「새로운 말 배우기- 박범신 장편소설 <나마스떼>」, 『문학동네』 43, 2005, 1-3면

- 이은주, 「현상은 어떻게 생성되는가?- 후설현상학 연구」, 『철학과 현상학 연구』 20, 2003, 45-70면
- 조구호, 「이주노동자의 현실과 상생을 위한 모색- <나마스테>를 중심으로」, 『국제어문』 52, 2011, 289-314면
- 조성희, 「소설 <나마스테>에 드러나는 다문화주의 수용의 한계」, 『Journal of Korean Culture』 17, 2011, 283-307면
- 천연희, 「현대소설을 통해 본 이주노동자에 대한 한국인의 태도」, 전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 홍원경, 「한국소설에 나타난 외국인 노동자의 재현 양상- 박범신의 장편소설 <나마스테>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문화콘텐츠기술연구원 학술대회』, 2010, 3-15면
- 박범신, 『나마스테』, 한겨레신문사, 2005
- 박승익, 『후설 & 하이데거』, 김영사, 2007, 69-74면
- 유제분 엮음, 김지영·정혜옥·유제분 옮김, 『탈식민페미니즘과 탈식민페미니스트들』, 현대미학사, 2001
- 이남인, 『후설의 현상학과 현대 철학』, 풀빛미디어, 2006
- 이종훈, 『후설의 현상학과 현대문명 비판』, 한국학술정보(주), 2014, 158면
- 태혜숙, 『탈식민주의 페미니즘』, 여이연, 2001, 52-154면
- 가야트리 스피박, 문학이론연구회 옮김, 『경계선 넘기- 새로운 문학연구의 모색』, 인간사랑, 2008, 16면
- _____, 태혜숙 옮김, 『교육기계 안의 바깥에서』, 갈무리, 2006
- _____, 태혜숙 옮김, 『다른 세상에서』, 여이연, 2008, 485면
- _____, 태혜숙·박미선 옮김, 『포스트식민 이성 비판』, 갈무리, 2005, 9-366면
- _____, 외, 로절린드 C. 모리스 엮음, 태혜숙 옮김, 『서발턴은 말할 수 있는가?- 서발턴 개념의 역사에 관한 성찰들』, (주)그린비출판사, 2013, 15-90면
- 넋타 요시히로, 박인성 옮김, 『현상학이란 무엇인가』, 도서출판 b, 2014, 26면
- 에드문트 후설, 이종훈 옮김, 『순수현상학과 현상적 철학의 이념들1』, 한길사, 2009
- _____, 이종훈 옮김, 『순수현상학과 현상적 철학의 이념들2』, 한길사, 2009



_____, 이종훈 옮김, 『순수현상학과 현상적 철학의 이념들3』, 한길사, 2009
자크 데리다, 김응권 옮김, 『그라마톨로지에 대하여』, 동문선, 2004, 203면
프란츠 파농, 이석호 옮김, 『검은 피부, 하얀 가면』, 인간사랑, 1998, 150면
피에르 테브나즈, 김동규 옮김, 『현상학이란 무엇인가- 후설에서 메를로퐁티까
지』, (주)그린비출판사, 2011, 109면

「Abstract」

Servalton study of Postcolonial feminism to
Intentionality
—Focusing on 『Namaste』by Park Bum Shin—

Lee, Mi-Hwa

Key project of intentionality to Husserl is grasp what the object is by itself. Although many phenomenologists are writing the history of heresy about Husserl, after Husserl, the spirit of Husserl what go back to ‘Sache by in itself’ is continued. But also postcolonial feminism important to the work that statement read to ‘In itself’ and reflect on the act of reading so as to know the problem that it is subaltern women really wanted to say what. So intentionality of Husserl is communicate with Servalton's discussion to postcolonial feminism. To pay attention, this sense toward the object is always appeared in 『Namaste』by Park Bum Shin. In this respect a greeting “Namaste” what appeared in nuclear language in 『Namaste』means “communication with the world”, so it comes even more special.

But, unfortunately, women were excluded at this scene of communication. 『Namaste』aim for communication with the complicated world connected to “karma”, but women were excluded from horizontal character. So, I'm going to progress subaltern discussion of postcolonial feminism, which desert a commonsense world view and natural attitude, to intentionality take a transcendental



attitude.

Key words: Husserl, Intentionality, Postcolonial feminism, Subaltern, Spivak, Park Bum Shin, 『Namaste』, Noesis, Noema

투 고 일 : 2017년 11월 10일 심 사 일 : 2017년 11월 10일-12월 10일

게재확정일 : 2017년 12월 15일 수정마감일 : 2017년 12월 20일